

“中, 한반도 전쟁가능성 우려...방어적 동원령 필요”

국제 관계 전문가 “중국 방위력 과소평가 말라” 경고

중국 국제 관계 전문가들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그에 대비한 방어적 동원령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 여부는 미국과 북한의 손에 달려있고, 특히 미국이 원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하면서도 이 같은 언급을 하고 있다.

18일 환구망(環球網) 등에 따르면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전날 중국 동북지역의 동원령 필요성과 관련해 “방어적 동원

령은 주로 군사 분야에 집중되며 전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경 지역에서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체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원령과 관련해 북중접점에 대공 미사일 배치와 북한의 전쟁 피난민을 위한 잠재적인 인도지원 준비 등을 꼽았다.

쑹중핑은 “중국이 준비되었다면 이 같은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 국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행동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협한다면 방어적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그는 이어 “중국군은 한반도에서 잠재적 분쟁에 대한 준비가 돼 있으며 국제 사회는 중국의 방위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쑹중핑의 이런 발언은 왕홍광(王洪光) 예비역 중장이 16일 환구시보(環球時報) 연례 포럼에서 지금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언제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중국 동북 지역에 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나온 관련 언급이다.

왕홍광은 포럼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여부는 미국의 손에 달려있다. 미국이 전쟁을 원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을 것”

이라는 의견도 냈다.

스인홍(時殷弘) 인민대 교수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북한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의 대가와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평화로 푸는 열쇠는 미국과 북한에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 평화 유지에 매우 중요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펑(朱鋒) 난징(南京)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한반도 군사 충돌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중국 사회는 심적으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120 후리 주홍

주홍(周興, ?~691)은 측천무후 시 절 대표적 후리였다. 웅주 장안 출신으로 색원례, 내준신과 함께 3대 후리라는 별칭을 얻었다. 영남으로 유배 가는 중 피살되었다.

젊은 시절 법을 공부해 상서성 사형 소경과 추관시랑을 거쳤다. 측천이 아들 예종을 대신해 칭제하자 이경업의 반란이 일어났다. 난을 진압하면서 황실 종친과 대신들이 자신을 원망하며 서 마음속으로 따르지 않음을 알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숙청에 나섰다. 이에 동원된 관료가 후리다. 후리란 말 그대로 가혹하게 법을 집행하는 관리다. 오랑개 출신 색원례가 측천에게 유격장군으로 발탁되어 육송(獄訟)에 관한 업무를 맡아 악행을

정을 변치 않을 것이라 생각해 ‘오랫동안 인내하는 친구’라는 뜻의 내구봉(耐久朋)이라고 불렸다. 참모 병제가 위헌동태에 말하기를 “어른께서는 어찌하여 믿고하지 않으시고 태후가 부르시면 찾아뵙고 스스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까?” 위헌동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사람이 죽이는 귀신이 죽이는 또 다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도로 사람을 믿고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많은 군공을 쌓은 우무위대장군 연공 측시(연공 측시)가 모반을 일으켰다고 무고해 하 옥시키니 목을 매어 죽었다.

690년 측천이 황제에 올라 국호를 주로 바꾸었다. 주홍은 이에 당의 친족 속직을 없애자고 상주하였다. 권력은 황제의 조카인 무승사와 무상사에게 집중되었다. 동북각난대삼품 위방

3대 후리 중 한 명...유배 중 피살

저질렀다. 상서도사의 직위에 있던 주홍이 이를 분반야 맹활약을 해 추관시랑으로 승진했다.

688년 태자통사시인 학상현을 죽이는 옥사를 담당했다. 그의 조부인 학처준은 강직한 신하로 건강이 나쁜 고종이 측천에게 섭정을 맡기려는 일을 반대해 그녀가 권력을 장악하는 시간이 9년이나 늦어지게 되었다. 이에 양심을 품은 측천은 노복이 학상현이 반란을 도모한다고 무고한 사건을 이용해 집안을 박살냈다. 주홍은 학상현을 때려죽여 시체에서 사지를 잘라내고 조부와 부친의 분묘를 파고 관을 부수어서 시체를 불태웠다. 688년 낭야왕 이충, 왕왕 이정 등 황족들이 측천을 미 하비드에서 수학한 기업인 출신답게 140억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사회간접자본·보건 시설 투자와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 개혁·연금 개편 등의 친시장 공약도 내걸었다. 빈곤 퇴치와 대학 무상 교육 확대 등도 약속했다.

피네라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대선 1차 투표에서 36.64%를 얻어 기예르 의원(22.70%)을 제치고 1위에 올랐으나, 과반 득표에 실패해 이날 결선투표를 치렀다. /연합뉴스

질이 병이 들자 그들이 문병왔는데 침상에서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주변 사람이 이를 간언하자 위방질이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인데 대장부가 어찌 굽혀 가깝고 인척들을 섬기면서 구차하게 살겠는가?” 주홍은 무씨들의 사주를 받아 그를 담주로 유배시키고 집을 적몰하였다. 무승사의 명을 받아 수주사 탁왕 이상급, 서주자사 허왕 이소절이 모반했다고 고발해 낙양에서 목을 매 죽였다. 주홍에게 피해를 입은 가문이 수백을 넘었다. 원성이 자자했다. 황제로서도 이런 여론을 외면키 어려웠다. 문장우승에 오른 주홍이 구신적과 통모하였다. 고발이 들어오자 황제는 내준신에게 국문을 명하였다. 유명한 청군임음(請君入籠)의 고사다. ‘황제에게 보고된 문서에 형을 조사하라 하니 바리칸대 형제서는 이 독에 들어가 주십시오.’ 주홍은 공포에 떨어 머리를 땅에 두드리고 죄를 자백하였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으나 황제는 그를 영남으로 유배토록 명하였다. 가는 도중 피해를 입은 집안사람들에게 피살되었다. 황제의 신임을 받아 무씨 성을 하사받고 후리들의 만행으로서 권세를 누리던 인간이 허망한 말로였다. 그는 관청의 대문에 “고발된 자들은 저마다 억울하다고 하지만, 목이 달아나고 나면 하나 같이 말들이 없네”라는 글을 붙여놓았다고 한다. 진정으로 악인의 전형이었다.

필리핀 태풍 30명 넘게 사망

보라카이 외국인 400명 발 묶여

제26호 태풍 ‘카이탁’이 강타한 필리핀에서 산사태와 홍수로 30명 넘게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중부의 유명 관광지 보라카이 섬에는 한국인 관광객 수백 명이 태풍으로 배편이 끊겨 사흘째 발이 묶였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의 세부분관 관계자는 18일 “보라카이 섬에는 한국인 관광객 4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 16일부터 선박 운항이 중단돼 섬을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태풍으로 인한 한국인 관광객이나 교민 인명피해는 아직 없다”며 “오늘 새벽부터 선박 운항이 재개돼 한국인 관광객들이 보라카이 섬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칠레 대선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우파 야당 ‘칠레 바오스’(칠레어 감시다·CV) 후보 세바스티안 피네라 전 대통령이 수도 산티아고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칠레의 트럼프’ 피네라 4년 만에 재집권

중도좌파 후보에 결선투표 9%P 앞서 당선

세바스티안 피네라(68) 전 칠레 대통령이 4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했다. 17일(현지시간) 칠레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우파 야당인 ‘칠레 바오스’(칠레어 감시다·CV) 후보로 나선 피네라 전 대통령은 중도좌파여당연합 ‘누에바 마요리아’(새로운 다수·NM) 후보인 알레한드로 기예르 상원의원을 결선투표에서 꺾고 당선을 확정했다. 두 후보간 득표율은 약 9%포인트로, 1차 투표에서 분산됐던 좌파 후보들의 표가 결집할 경우 2% 안팎의 박빙 승부를 펼칠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큰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다.

피네라는 “감명 깊은 승리에 겸손해진다”면서 “선거 기간 분열됐던 모습을 뒤로 하고 다시 하나로 뭉쳐달라”고 호소했다. 피네라의 당선이 확정되자 지지자들은 길거리로 몰려나와 깃발과 현수막을 흔들거나 경적을 울리며 환호했다.

피네라는 칠레의 민주주의 회복 이후 20년간 계속된 중도좌파 집권 시대를 끝내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좌파에 권력을 내줬다가 4년만에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



중식당에 ‘문재인 세트’ 등장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기간 아침 식사를 위해 들렀던 중국 식당에 문 대통령의 이름을 딴 메뉴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방중 이틀남인 14일 노영민 주중대사와 찾았던 옹허셴장이라는 이 식당은 문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에 ‘문재인 대통령 세트’란 신메뉴를 출시했다. <여러마 췌차=연합뉴스>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악 학 과	5
	실용음악학과	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 6(토) ~ 1. 9(화)
• 전 형 일 : 2018. 1. 16(화)

편 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
	음악 학 과	○	
예능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7(수)
• 전형일 : 2018. 1. 23(화)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 17(수)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1. 23(화) 오후 2시 30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전 형 일 시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7	2017. 12. 15(금) 오후 2:30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석사통합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25	2017. 12. 16(토) 오후 2:4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20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8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